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10절

오늘 배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는」사람입니다.

「믿음」은 「고백」과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으면 좋을지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에 대한 믿음,

즉 주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부활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집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갚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기에

제자들은 죄의 구속과 영생, 더 나아가서 반드시 올 신천지를 확신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구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을 지성, 감성, 생각이라고 하는 인간의 전인격의 중추이며,

내적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마음에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인격의 중심, 존재의 중심, 삶의 한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고백」입니다.

불이 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연기가 피어 오릅니다.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고백」이 됩니다.

「믿음」은 「고백」이 되어 결실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고백」이 함께 하는「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며,

「고백」이 없는 「믿음」은 「허무하며 보이기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의

「주(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황제한테도 신들에게도 사용되었던 최고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황제 앞에서도,
「나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나의 신은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바뀌 말하면,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도 로마의 신들에게도 최종적으로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되며,
그러므로, 로마의 정치제도에 반역으로 간주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인 예수님은 헤롯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천년간,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했습니다.

일본의 전시하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마테라스오오가미(일본 신화의 해의 여신, 일본 황실의 조상신)과
일황을 모독하는 것이며,
국가체제에 반하다하여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신이시며,
예수님이외의 그 어떤것에도 따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것에서의 자유함을 의미하며,
이세상의 그 어떤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세력을 적으로 삼겠다고 하는 고백이며,
세상에 영합하고,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항거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주를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를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만,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은 마음에 믿게 하심을 받고 의로 인정받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어 구원에 이른다(직역)」라고 일부러
다시 고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고백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백하다」는 「단언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신이시며,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누가 봐도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며,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공공연히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에 관해서 본회퍼는 간단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따르는 것이며, 따르는 자만이 믿는 것이다」

이것이「고백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회퍼에 의하면, 그것은 또한, 부름받은 시대상황에서 주께 「응답하는」것입니다.

이 고백적인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이,
전시하의 일본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결여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생명선이었지만,
전시하의 목사와 신도는 예수님이 아닌 아마테라스오오카미와 일황을 주인으로「고백」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당연히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그릇만 되는 것이 아니라
놓여진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응답하고」, 들은 진리를 세상에 고백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들의 본질을 시대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일부의 순교자와 선교사들이,
그 시대에 그야말로 시대에 맞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몇 번이나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일부 신앙의 양식있는 목사들이 일어나,
전시하의 암흑과 같은 시대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 했습니다.

그 하나가「바르멘 선언」입니다.
제1차대전의 패전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경제를 부흥시킨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대두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도 연이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됩니다.
「독일적인 그리스도자 신앙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아베노믹스는 아닙니다만,
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 완전히 독재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교회도 그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가운데,
칼 바르트등 양식있는 목사들이
이대로는 안되겠다해서 일어난 것이 「바르멘 선언」의 시초입니다.

그 제1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14:6)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청종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가 그 선교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이외에,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이나 힘(권세), 현상,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로서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배격한다」

당시,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수상취임이나 나치스의 정권획득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결되었으며,
그 외의 현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간주하는 것을 베르멘 선언은 부정한 것입니다.

제 5항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벧전 2:17)

국가는,
교회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인간적인 통찰과 능력의 분량에 따라, 권력으로써 위협하고 행사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배려해야한다고 하는 과제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주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함으로 인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켜,
그것에 의해서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국가가 그 특별한 위탁을 넘어서,
인간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까지 실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배격한다.

교회가 그 특별한 위탁을 넘어서,
국가적인 성격, 국가적인 과제, 국가적인 가치를 획득하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국가의 한 기관이 되어야 하며,
또 그 같은 것이 가능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배격한다.

나치스는,
게르만 민족의 우위를 입법화한 「아리아인 조항」에 의해서 유대인으로부터 시민권을 약탈했습니다.
본베어는 이것을 비난하며,
독일 국가가 「정의와 질서를 보호할 의무를 포기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 「아리아인 조항」이 어용목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규칙으로 만들어지려 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주를 고백하는 주의 교회가 아니라고 본 양심있는 목사들이,
자신들의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라는 의미에서 각지에 고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르멘 선언의 제 1항은,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지배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서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5항에서는,
국가가 교회의 신앙을 간섭하지 않으며,
나아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본래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속의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아첨하는
어용 목사나 어용 신학자들처럼
「스스로 국가의 한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교회 본래의 임무를 달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보내어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 보내 주셨습니다.
진정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이 시대에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